

연중 제 17 주일

기도서 400 면

제 1 독서 : 열왕후 4, 42-44
 제 2 독서 : 에 페 4, 1-6
 복 음 : 요 한 6, 1-15

숲 정 이

발행권인 : 천주교전주교구
 편집인 : 사 목 관 리 국

편집실 : 전주시서노송동560~6
 전주 교구청
 ☎ ③ 5098 ③ 3201

□ 감 론



가장 큰 빵

강 덕 창 신부

보리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오천명 이상이나 되는 사람들을 배불리게 하였다. 그것이 가능할까?

오늘의 이 말씀은 최후 만찬 기사와 관계되고 오늘 기사 다음에 나오는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하신 말씀과 연관지어 생각할 수 있다.

먼저 최후의 만찬기사나 “나는 빵이다”하신 말씀이나 예수자신을 빵으로 본 점에서 동일하다. 빵은 무엇인가? 빵은 인간의 육체를 배불리고 생명을 주는 것이다. 생명은 인간이 원하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 복음의 기적의 빵을 먹었던 모든 사람이 죽었다. 그렇다면 주님은 그런 물질적 빵이시기를 바라셨던가? 아니다. “하늘로 부터 온 빵”천상의 빵이라 하였다. 좌우간 예수님은 물질적 빵은 아니시다. 물질적 빵이 아니라면 영적인 빵이다. 그렇다면 육이 아닌 것, 다시 말하면 육체를 지배하는 육체 이상인 것, 인간의 영혼, 정신, 마음 등으로 표현되는 영역을 살리고 진강하게 하는 빵인 것이다. 여기서 예수라는 빵을 먹는다는 뜻이 분명해진다. 예수님의 영과 마음이 영생을 이루신 점을 미루어 볼 때, 그분의 영과 마음은 전인에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육을 살리는 물질적 빵(음식)과 같은 역할을 한다. 이 빵을 먹는다는 것은 나의 영을, 마음을 예수님의 영과 마음으로 바꾸는 것을 뜻한다. 그것이 인간을 신성(참 생명, 영생)에 참여케 해준다.

그렇다면 스승의 지식이 줄어들지 않고 많은 제자들에게 전수되듯이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지만 그것을 나누어 가지는 것은 가능하다. 결국 예수 한 분으로 전인류가 먹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기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보리빵 다섯 개 기적 이야기가 가리키는 참 기적이 예수를 따르던 당시인들에게 이루어졌고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다.

(황등 천주교회 주임신부)

* 축! 제 6대 전주 교구장 *

박 정 일 주교님 착좌

일시 : 1982. 8. 10. 오전 11시
 장소 : 전주 해성 중·고 대강당



하루를 바친 이들

희생금이라는 것이 있다. 문자 그대로 희생을 해서 내는 돈이다.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쪼개어 주는 것이다. 성금보다도 훨씬 값진 돈이 아닐 수 없다. 하기가 정성을 바치는 의미에서는 둘다 같은 것이기는 하지 만.

이리 태창메리야스에서 해고된 두 젊은이들을 위해서, 같은 처지에 있는 근로자들이 하루의 일당을 희생해서 돈을 모았다. 뜻있는 사람들만 참여하다가 보니, 더군다나 그들도 또한 가난한 근로자들이고 보니 모아진 것이랴야 별돈은 아니다. 10만원 조금 더 넘게 모아졌다 고 한다. 그러나 이 정성이야말로 엄청난게 큰 것이다. 그들이 꼭 필요로 하는 생활비의 일부를 바친 것이니까.

우리나라는 근년에 많은 종류의 성금이 그 얼굴을 내밀었다. 방위성금부터 시작해서 갖가지 재난을 당한 사람들을 돕는 성금은 물론, 무슨 체육성금까지도 등장했다. 그 뜻이야 다 좋지만, 하도 그 종류가 많으니 내는 사람은 상당한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다보면 체면 때문에 내기도 해야 하고, 직장인이라는 신분 때문에 내기도 한다. 직장에서 내고, 동네에서 내고,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또 학교에도 내야 했다. 거의 전가족이 내다보니, 마치 세금을 내는것이 아닌가 하는 착각에서 헤어나기조차 힘들 때도 있었다. 그러다보면 정성은 뒤틀 전으로 물러나고 만다.

어려운 처지에서 고생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일은 참으로 좋은 일이다. 또 그걸 하고보면, 역시 잘했구나 하는 기쁨도 맛 볼 수 있다. 그러나 처음에 시작하기가 참 어렵다. 그래서 대개는 머뭇거리다가 만다. 그런데도 그 근로자들은 어려운 처지에서 하루를 바친 것이다. 이러한 좋은 일들이 탐스러운 열매를 맺는 곳이 바로 하느님 나라이다. 그러기 때문에 박수를 보낸다.

숲 정 이 산책



몸가짐을 단정히 합시다!

6회 공판 방청기

홍보는 교육의 한 방법

2백주년을 맞이하는 한국 교회는 이를 대내외에 널리 홍보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백주년에 관한 홍보는 2백주년에 참여하는 신자들에게 대한 교육의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의 고견을 바라면서 다음의 계획안을 제시해 본다.

(1) 홍보 원칙: 2백주년 사업의 홍보에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생각할 수 있다. 즉 대내적으로는 한국 천주교회 2백주년의 역사적 의미를 일깨워주는 방향으로, 그리고 이 세상을 복음화 하여야 하는 가톨릭 신자로서의 사명감을 고취하는 방향에서 전개되어야 한다. 또한 2백주년의 준비를 기점으로 하여 신앙을 재무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방향에서 전개되어야 한다.

대외 홍보는 가톨릭 교회의 본질과 개념을 명확히 인식 시켜줄 수 있는 내용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2) 홍보 기구: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서는 중앙위원회 안에 전담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그리고 여기에서 홍보 일정을 기획하고 보도자료를 제작하여 해당자들에게 발송해 주는 업무까지 맡아야 한다. 홍보 기구의 요원은 교회 홍보 매체와 일반 언론 기관에 종사하는 실무자들을 중심으로 선발될 수 있을 것이다.

(3) 홍보 단계: 지금 당장부터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홍보의 계획을 위해서는 일정한 단계가 필요하며 1단계 홍보(82. 7~12)는 각종 기념사업의 진행과정과 규모 등을 알려주는 작업으로 볼 수 있다. 2단계(83. 1~12)는 각종 기념사업이나 행사에 관한 좀더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해서 제시해 주어야 한다. 3단계 홍보(84. 1~6)는 2백주년의 사업이나 행사에 대한 종합적이고 집중적인 보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4단계 홍보(84. 7~10)는 각종 기념행사와 사업이 절정에 이르는 단계이므로 이 모든 것들이 뉴스의 옷집이 되도록 배려되어야 한다. 또한 5단계(84. 11~12)에서는 각종 행사 및 신앙대회의 결실에 대한 종합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4) 홍보 방법: 교회내의 홍보를 위해서는 교회의 기존 홍보 매체를 그대로 활용한다. 그리하여 각 홍보 매체에 고정난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지속적인 보도가 되도록 해야 한다. 대외 홍보를 위해서는 모든 보도자료를 미리 작성하여 배포하고, 각 일간신문과 방송의 종교담당 기자들을 위한 친절한 자료 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같은 작업을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홍보의 창구가 일원화되어야 하며, 홍보를 총괄하고 지휘할 대변인들의 팀이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 19일 오전 10시부터 10시간 동안 부산 법정에서 최기식 신부의 9명의 변호사 반대신문을 방청했다.

검찰의 공소 사실은 이미 매스컴을 통하여 보도된 대로였다. 그러나 최기식 신부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한결같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자기들은 분명히 반공의식이 투철하다고 강조하면서 오직 민주주의 회복과 국민 복리를 위해 살려야 하는 의지에서 고통받는 이웃과 함께 하는 지성인이 되고자 스스로 도서관 아니면 서점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많은 책들을 공부했으며, 동료들과 함께 현시국의 정치, 경제, 문화에 관한 문제점을 찾아 해결하려는 차원에서 토론한 사실이 있고, 언론이 특정 보도되는 상황에서 진실을 밝히려고 노력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최기식 신부만 고문을 받지 않고 모두 통타구이 고문, 물 고문을 몇 차례씩 당한 실신상태에서 살고 싶은 의욕 때문에 수사관이 시키는대로 '사회주의 신봉자' '좌경화 학습(교육)' '불순 활동을 목적'으로 방화, 살인, 반미 운동을 했다는 등 사실과는 달리 허위 진술내지 허위자백을 하였다. 특히 매맞는 고문은 이겨낼 수 있었지만, 막대기에 손발을 묶어 매달거나, 혹은 옷을 벗겨 머리를 욕조에 틀어박아 물을 먹여 실신하게 하는 고문은 도저히 견딜 수 없었다고 여자들도 고백한다.

아버지 4형제가 육사 출신이라는 문 부식과 해외에서 반체제 활동을 하는 김 재준 목사 손녀인 김 은숙의 변호사 반대신문은 지난 5회 공판 때 끝났기 때문에 미문화원 방화사건의 자세한 동기, 목적은 알 수 없었다. 왜냐하면 이번에 심문 받은 사람들 중에는 공소 사실과 달리 분명히 방화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음을 밝히는 사람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모든 사건의 배후 조정자로 지명 되었던 김현장은 가끔 문 부식을 만난적은 있어도 방화를 교사한 일은 전혀 없고 오히려 방화에 대한 간접적 질문을 받았을 때 폭력은 비폭력으로 대해야 하며, 악을 선으로만 이길 수 있음을 알려주었고, 만일 그렇게 되면 현시점에서는 '홀초상' 날 것이라고 했다. 만일 때마다 졸업하여 훌륭한 목사가 되달라고 부탁했고, 문 부식은 자기가 원주에 있는 줄을 모르고 원주에 왔다고 증언했고, 「○○ 살륙작전」이란 유인물은 제작한 사실이 있음을 시인하며 광주사태에 대한 얘기를 생생하게 들려주었다. 검찰의 제지발언도 있었다. 유일하게 특혜를 얻어 고문받지 않은 최기식 신부는 사목자의 입장, 교회의 기본 입장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의식화 교육은 정부와 이간시키는 것이 아니고 민주기반이 됨을 확신하기에 학생 운동 맥락과 광주사태의 실상을 잘 알고 있는 입장에서 그들을 고발할 수 없었다면서 오로지 본인들이 지주하는 데 최선을 다해 협조해 주었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고문과 조작이 없는 사회가 될 때 정의사회 복지사회가 되리라 믿는다. 폭력은 폭력을 낳는다는 것을 알아야겠다. 도덕성과 윤리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벗어나도록 기도하자!

강산의 아름다움을 가장 잘 아는

전 일 관 광

전 화 ⑥ 6 6 6 6 ~ 8

조 (안토니오)선

박 (가브리엘)용 이

안내합니다

주단 · 포묵(훈수 · 획갑운 감)도매상

각종 솜, 이불(밍크)카펫저도매상

서울 주 단

전화 ⑤ 0 4 5 3

전주 중앙성당 정문 옆 김 안토니오

유럽 성화 전주 전시회(안내)

일 시: 7월 21일~8월1일 오전 10시~오후 8시

장 소: 전북 예술회관 대 전시실(구 시민 문화관)

주 최: 한독 미술가 협회 · 전주 문화방송국

후 원: 천주교 전주교구

※ 이번에 전시되는 작품들은 대부분 그리스도와 성인들의 생애를 그린 명화들로 전주에서는 처음 접할 수 있는 원화들입니다. 신심과 교양에도 크게 보탬이 되리라 믿습니다.



□ 지성인 예비신자 교리반 소개

82년 5월 9일부터 전주 가톨릭 센터에 개설된 지성인 예비신자 교리반은 지금까지 241명이 등록하였고, 30명을 단위로 7개반과 통신 교리반으로 편성하여 지도하고 있습니다. 등록된 예비신자들 중 65%가 20대의 젊은이들이라는 점과 거의 모두가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 소지자들이고, 남자가 53%인 젊은 특기할 사항들입니다.

예비신자는 연중 언제나 신청을 받고 있으며, 지금까지 추세로는 매주 약 10여명 정도가 신청하고 있습니다. 접수된 신청자가 30여명이 되면 새 교리반을 개설하고 신부님, 평신도 봉사자 그리고 성가지도자로 구성된 지도팀이 지도하게 됩니다. 예비신자들의 편의에 따라 교리 시간은 정해지며 주부들을 위해서는 현재 수요일 오전반을 개설하고 신청자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진리를 찾고자 하는 사람은 너무 많습니다. 다만 우리들의 노력 부족으로 그분들에게 기회를 드리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함께 복음 전파의 역군이 됩시다.

그리고 예비신자 교리반에서 봉사할 평신도 및 성가지도자도 모집합니다. 뜻이있는 분은 가톨릭 센터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 가톨릭 센터)

□ L.M. 연수회 대 성황이뤄

금년도 '마리아 군단 제 5차 연수회'가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톨릭 센터에서 지난 17~18일 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짧은 일정에 장장 12강의가 넘는 고된 교육이었는데도 뜨거운 신심과 하나라도 더 배우고 익히려는 단원들의 열의는 온 강의실을 불덩이처럼 달아올렸다. 이열치열 하는 레지오의 열기, 그 깊은 신앙에 교구의 기대가 가득차 오른다.

□ 6지구 사도 임원 연수, 깊은 결속다져

새로 꾸민 장계분당 교육관에서는 지난 16~17일 처음으로 지구 사도임원 합동 연수회를 갖었는데, 각 본당에서 거의 100%의 참석률을 보여 남다른 유대와 결속 그리고 그리스도 공동체 대표들의 유감없는 일체감을 한껏 발휘했다.

금년은 특히 본당 공동체의 해. 그대 누구보다도 먼저 임원들의 단합과 협동의 모습을 보여야 할 때, 6지구(무주, 장계, 장수, 진안, 한들)사도회 임원들은 참으로 훌륭한 화합과 친교의 귀감을 보여준 것 같아 흐뭇하기 이를 데 없다. 그곳 신부님, 회장님 그리고 봉사하신 모든 분들께 깊숙한 치하와 감사의 박수를 보내마지 않는다.

□ 전주교구 가톨릭 대학생 도보 순례

전주교구 대학생 연합회는 역사의 뿌리를 찾자는 구호 아래 천년처럼 한국 최초의 박해인 신해년의 순교자이며, 한국 근대사의 풍운아였던 윤 지충님이 체포되어 전주까지 압송되어온 치병형로를 침묵과 기도와 묵상으로 도보 순례를 금년은 대전, 전주, 광주 3개 교구가 합동으로 갖을 예정이다.

때 : 1982년 8월 6일~10일(4박5일)

곳 : 진산-용계원-가천-고산-봉동-전주

참가대상 : 전주, 광주, 대전교구 가톨릭 대학생 연합회 회원 및 신자 대학생

신청장소 : 전주 덕진 가톨릭 학생회관 (전화 3-9449)

참가비 : 3,000원 신청마감 : 7월 30일(금)

예비모임 및 교육 : 7월 31일(토) 오후 3시

예비모임 장소 : 전주 덕진 가톨릭 학생회관

※ 예비모임에서 교육 받지 않은 학생은 참가 불가능합니다.

요심이 (468) 김병오

당국이요? 숲정이 503호를 우체국에서 배달을 안했는데

배달을 안했으면 그 이유를 발송자에게 알려주어야 하지않소?

그리고 이유없이 배달을 안했으면 주모에 붙혔던

우표값은 반환 해주어야 하지않소?

교우의 식당

味 滿 회 관

(舊. 쇠뜨리랑 집)

단체·연회석·빙난방 완비

정성을 다해 양심껏 모시겠습니다.

많은 애용 있으시길 바랍니다

전북은행 후문 앞

협성아케이트 뒷집

전화 ③ 9301

김 기봉(배남시오)

가옥 급매대

주소 : 군산시 조촌동789-15

대지 64평 건평 25평

용자금 국민주택 (2백만원)

연락처 : 파티마 성당

전화 ③ 0915

※ 매매하실 분이나 소개하실 분은 파티마 성당으로 연락 주시면 후사하겠습니다.

□ 땀 제거(독일수입품)

하 이 도 난

□ 사마귀 제거

베 루 말

전주 시민 약국

전화 4-0009

3-3338

중앙시장 입구

약사 김병의(마벨로)

□ 개업

훈례·회갑·선물·장식

고전 동양 매듭

매듭작품, 재료판매 및 수강, 벽걸이, 발걸이, 장걸이, 목걸이, 노리개...

도 교육청 정문 바로 앞

매듭 전문 연구실

임 영 수(테베사)

숲정이 「광고」

이 용 안 내

숲정의 활발한 편집운영과 교우들의 친교와 유대 협력 관계를 위해 광고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 광고 1간 1회 5천원

문의전화 ③ 5098

숲정이 편집실

제 4 지구 각 본당 소식



1. M. B. W. 묵상회 : 일시-26일~29일 오후 3시 대상-모든 신자분들, 접수-사목국, 회비-2만원
2. 통신성서 연수회(구약) : 일시-8월 2일~5일 대상-정규생, 성서공부 하시는 분, 접수-성바로 서원 회비-15,000원,
3. 농민회 임원단학대회 : 일시-30일 오후 2시~31일정도 장소-진안 천주교회(2시집결), 회비-3천원
4. 대학생 연합회 도보성지 순례 : 일시-8월 6일~10일, 장소-진산~전주, 예비모임-31일<토>오후3시
5. 가톨릭 합창단 정기 연주회 : 8월 1일, 중앙성당 오전 10시 30분 미사, 창인동 성당 오후 8시 미사
6. 유럽 성화 전시회 : 일시-21일~8월 1일, 장소-전북 예술회관
7. 축! 영명 : 31일-(성이냐시오)성태수, 안철문 신부

(중앙)

전화 ⑤1711~3 주임 신부 문정현
보좌 신부 박인호
사도 회장

- 성경읽기 : 에레미야 8장~15장
- 1. 방지기 삼회 : 오후 2시 강당
- 2. 주일학교 방학교리 : 26~31일까지 오전9시~12시
- 3. 성탄 교리반 모집 : 8월1일 봉헌식에 참석할 수 있도록 교우분들께서 안내해 주세요 9시30분 강당에집합
- 4. 고등학생 하계교리 : 28일~8월 2일
- 5. 고등학생 수련대회 : 8월 3일~5일
- 6. 성전건립 신축헌금에 협조해 주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 : 김철수(150만원), 이희창·황의선 : 오연홍·임숙자(각50만원), 김옥기·임길석·강완순(각30만원) 박복덕·이강평·유영화·황국자(각20만원), 장태명 심진귀(각15만원), 김청순·박사율·정순남·김순자 문청자·이양권·김오순(각 10만원), 김정남(5만원) 이이쁜(1만원), 박은서(1만5천원), 이명2명(100만원)
- 지난주 봉헌금 : 665,485원 교무금 : 667,500원

(노송동)

신부 ⑥0969 주임 신부 김정원
수.사 ⑥7032 보좌 신부 박성팔
사도 회장 이홍재

1.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 26일<월>~31일<토>까지 본당-매일 오전9시~12시, 공소-매일 오후 2시~5시까지 어린이 풀놀이-8월1일(소양에서), 부모님들의 많은 협조 바랍니다
2. 중·고등학생 1일 수련회 : 29일<목>, 오전 8시까지 성당에 집결, 준비물-도시락 및 회비 500원, 장소-화양동 계곡(속리산)
3. 대학생 야외 피정 : 8월2일~5일까지(3박 4일), 장소-지리산 배사골,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준비물-회비 7,000원 및 쌀 3되, 보쿠, 성경, 생가집, 기도서
4. 금주의 성경읽기 : 구약의 역대기 상편 전체
5. 사도회 월례회 : 오늘 공식 미사후
6. 예비자 교리안나 : 일반-매주<일>공식 미사후, 남자반-매주<목>대주 미사후, 학생반-매주<토>오후4시
7. 성령 기도회 : 매주<금>오후 2시~4시까지
- 지난주 봉헌금 : 384,270원 교무금 : 204,000원

(덕진)

전화 ③2182번 주임 신부 서석원
보좌 신부 안철열
사도 회장 양상열

1. 축! 영명축일 : 31일 안철문(이나시오)신부님 축하연-31일, 축하식-8월 1일
2. 예언자의 모후 꾸리아 옥의행사 : 독배-8지반 미사후
3. 진복회·부녀회 월례회의
4. 주일학교 특별교리 : 8월2일~7일까지 2일-박용철·김용환·이석우, 3일-하근도·김정애 정경신, 4일-이남연·나영규·진홍철, 5일-소병을 김낙현·김용식, 6일-유정순·임종섭·소완영, 7일-유계상·오덕진·양상열 (이상 일일교장)
5. 청년하기 수련회 : 8월 9~11일, 장소-말도, 회비-7,500원
6. 봉헌 봉투 확인 하시고 사용 바랍니다
- 지난주 봉헌금 : 472,380원

(복자)

전화 ⑤5238번 주임 신부 김종택
사도 회장 조성호

1. 사도회 : 오늘 공식 미사후
2. 주일학교 하기 특별교리 : 8월 2일~7일 오전9~10시
3. 학생회 하기 수련회 : 7월 28일~31일 (3박 4일), 회비-3,000원 본당에서 9시 출발(시간업수)
- ※ 29일~30일까지 본당에 미사없음
4. 다음주 전례 : 해설-정진철, 독서-①김재식 ②안철조
- 지난주 봉헌금 : 428,020원

(서화동)

전화 ②2276번 주임 신부 김병환
사도 회장 황인구

1. 사도회 월례회 : 다음주 공식 미사후
2. 첫 영성체 교리 : 내일 (26)일 오전9시~10시까지실시
3. 어린이 합창단 : 내일 26일<월>오전 11시 참석바람
4. 주일학교 하계교리 : 26일 오전9시~12시까지
5. 자도회 모임 : 본당에 자도회가 발족되었읍니다 첫번째 모임-8월 4일 오전10시 많은 참석 바랍니다
6. 폐품수집 : 이웃돕기 위한 폐품수집 합니다 신자들의 많은 협조 바랍니다-꾸리아 주관
7. 중·고생 수련회 : (내일)26일~29일로 변경되었읍음
8. 소록도 나환자촌 위문 : 일시-8월16일 오전6시 접수 15일까지 신청순, 주최-할머니회 성심회, 회비 5천원
9. 차주전례 : 독서-①진환기 ②김수진
- 지난주 봉헌금 : 232,930원 교무금 : 230,500원

(숲정리)

전화 ⑦366 주임 신부 이대권
수.유 ⑨567 사도 회장 김수걸

1. 요안나 월례회 : 공식 미사후
2. 사도회 월례회 : 8월 1일 공식 미사후
3. 첫 영성체 교리 : 7월 19일~8월 14일, 매일 오전9시~10시, 대상-국민학교 3년~6년까지 부모님들의 협조 바랍니다
4. 주일학교 아동교리 : 일시-26일~31일까지 오전 8시 30분, 대상-유치반, 6학년생 전원
5. 교리 경시대회 : 8월 22일 11시, 대상-중·고등학생 전원, 출제범위-한국 천주교회사
6. 차주 전례 담당 : 해설-정주부, 독서-박병열·이원일, 기도-이철수
7. 미사 참례자 안내 : 허옥순·조금주·박봉자·고재만·정복주·임요안나
- 지난주 봉헌금 : 458,480원

(전동)

신부 ⑥6208 주임 신부 김병업
전화 사무 ③3222 보좌 신부 박병두
수녀 ③8347 사도 회장 이충두

1. 글라라 형제회 : 오늘 오후1시30분
2. 사도회 : 다음주 공식 미사후
3. 유아세례 : 다음주 8시30분 미사후
4. 성가정회 : 8월 1일 오후 2시
5. 주일학교 하계 특별교리 : 8월2일~7일 오전 9시부터 준비물-교리서(500원), 크레파스, 미사도구, 필기도구
6. 젊음이 하기 수련회 : 24일~27일, 진안 모정리
7. 중·고생 하기 수련회 : 27일~30일, 진안 모정리
8. 첫 영성체 교리 : 30일 오후 5시
9. 신축기금 : 황호자(5만원), 이덕봉(3만원), 이영자·배순례·오희영(각 2만원), 강복순·최문자·조재복 김춘자(각1만원)
10. 차주전례
이철미사 : 해설-박종구, 독서-①이현재 ②최병태
공식미사 : 해설-이준영, 독서-①유기동 ②장금태
저녁미사 : 해설-김윤주, 독서-①김동수 ②이승호
- 지난주 봉헌금 : 520,250원

(파티마)

신부 ②0915 주임신부 김영일
수녀 ②4804 사도회장 황희삼

1. 어린이 하기 성경학교 : 내일(26일)부터 시작 됩니다
2. 중·고생 하기 수련회 : 27~30일, 교산성당 뒤
3. 첫 영성체 교리 : 7월 30일<금>부터 시작 됩니다 국민학생 3학년 이상 보내주세요
4. 사도회 월례회 : 다음주에 있음을 예고해 드립니다
5. 꾸리아 회합 : 다음주에 있음을 예고해 드립니다
6. 교무금 신입 아니하신 분은 계시관에 공식하겠음
- 지난주 봉헌금 : 211,065원 교무금 : 203,000원



지휘 이 연 국



반주 강 석 희

초대의 글

성녀 세실리아를 주보성인으로 모시고 있는 서울가톨릭합창단은 1938년 노기남 대주교님께서 창단한 남녀혼성합창단으로서 창단당시부터 지금까지 교구내외의 음악행사 및 명동성당의 미사전례 및 침례행사 견진식, 영세식 등 음악행사에 참가하였고 20여회의 정기연주회를 가졌습니다. 본단은 첫째 가톨릭의 모든 전례를 성음악으로 표현하여 신자들을 하느님과 일치시키고 둘째, 미사전례와 합창을 통하여 나뉠대로의 신심과 공동체 의식을 갖고 셋째, 교회음악을 널리 보급하여 전교활동과 사회문화활동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흔쾌하고 어두운 이 시대에 고통받는 이들을 위하여, 전주 주교좌 성당 건립 25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교구간의 음악교류를 위하여 마련한 이번 행사에 더욱 많은 관심과 성원을 바랍니다.

하계 휴가기간을 이용하여 기도와 정성스런 마음으로 준비한 서울가톨릭 합창단의 순회연주회(음악미사)에 부디 참석하시어 공동체로서 주님께 찬미와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많은 지도 편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서울가톨릭합창단
단장 김 인 성 신부



서울가톨릭 합창단 순회연주회

■ 연주곡목 ■

이	문	근	신부	“Te Deum”
Siegfried	Cichy			“Messe in A moll”
G. P. da	Palestrina			“O bone Jesu” “Ave Marie”
C. Gounod				“Ave Verum”
M. A. Ingignerus				“Velum Templi”
Gregorian Chant	외	수곡		

■ 장 소 ■

1982년 7월 31일 (토) 오후 8시	광주시 남동천주교회
8월 1일 (일) 오전 10시 30분	전주교구 주교좌성당 (중앙동 천주교회)
8월 1일 (일) 오후 8시	이리시 창인동 천주교회

- 주 최 : 서울 가톨릭 합창단
- 후 원 : 광주대교구 사목국, 광주 남동 천주교회
전주 교구 사목국, 전주 중앙동 천주교회
이리 창인동 천주교회